

상처 치유하는 내면의 거울, 거장 루이스 부르주아의 미술

December 27, 2021 | 채지선 기자

Page 1 of 1

상처 치유하는 내면의 거울, 거장 루이스 부르주아의 미술



미국 뉴욕 웨스트 20번가의 자택 거실에서 내려오는 루이스 부르주아. 1911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그는 2010년 뉴욕에서 사망했다. 국제갤러리 제공

개인전 '유칼립투스의 향기'

식물의 줄기 같기도 하고, 신체 장기 같기도 한 형상.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불리는 루이스 부르주아는 생애 마지막 10여년간 이 같은 것을 그리는데 몰두했다. 제목은 '내면으로(Turning inward)'.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자기 성찰에 관한 작업이다.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국제갤러리에 루이스 부르주아의 개인전 '유칼립투스의 향기'가 개최된 가운데, '내면으로' 연작이 한국에서 최초로 공개됐다. '내 작업은 고통과 상처를 정화하고, 치유를 위해 존재한다'는 작가의 말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작가는 미술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자 했다. 실제로 과거의 분노와 상처에서 서서히 벗어나다. 국제갤러리 관계자는 "아버지의 외도와 이를 목격한 어머니를 지켜봐 온 작가의 작품은 초기에는 날이 서 있지만 노년에는 기조가 바뀐다"고 설명했다. 작가의 어머니는 남편의 불륜을 지켜보다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작가는 트라우마를 겪어야 했다.

전시 제목인 '유칼립투스의 향기'는 또 다른 작품의 개별 제목이다. 1920년대 후반 프랑스 남부에 거주하며 병든 어머니를 간호했던 작가는 유칼립투스를 태워 약으로 사용했다. 유칼립투스는 작자에게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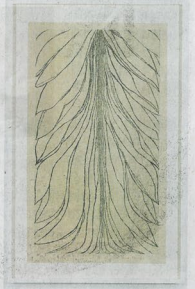
치유를 의미한다. 작가의 작품에서 어머니는 빼놓을 수 없는 소재다. 작가는 거대한 청동 기미 조각인 '마방(프랑스어로 엄마를 뜻하는 말)'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경기 용인 호암미술관 야외에서 감상할 수 있다. 서울 용산구 리움미술관 야외당에 있던 것이 호암미술관 재개관에 맞춰 용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마방은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거울 역시 작가의 작품세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다. 이번 전시에서는 1998년 작 '거울(The mirror)'을 볼 수 있다. 깨지기 쉬운 연약한 심장을 보여 주는 동시에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내면

을 직시하고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시장에서는 무의식에 관심이 많았던 작가의 초현실주의 풍의 작품도 볼 수 있다. 1967-68년에 제작된 조각 '무의식의 풍경(Unconscious Landscape)'이다. 크고 작은 것이 울룩불룩 솟은 형태인데 신체의 일부를 떠올리게 한다.

같은 제목이지만 다른 느낌을 주는 조각 작품도 있다. 두 점 다 '여성(Femme)'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만, 상반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하나는 부드럽고 연약한 느낌을, 또 다른 하나는 일그러져 고통 받는 느낌을 준다. 전시는 1월 30일까지 채지선 기자



루이스 부르주아의 '내면으로 #4'. 국제갤러리 제공